[칼럼]

꺾기도

경상대학 무역학과 조교수 심 종 석

아동문학을 전공하시는 김선생님은 요즈음 무척 고민이 많다고 하셨다. 떠올려보면 하나같이 알록달록하고 고소한 소재들인데도, 이제는 이 모두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깨진 창문틀 유리 조각 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나름 청춘의 때부터 그렇게 꿈꾸어오고 갈망해왔던 아동문학가로서의 지위를 얻자마자, 이처럼 한없는 자괴감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공황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밑단을 세 번이나 접고도 뒤가 질질 끌리던 새로 산 추석날의 절구통 하얀 바지, 그것도 하루걸러 두세 번 빨아 재낀 터에, 열흘을 못 넘긴 채로 거뭇거뭇 시커먼 물이 배어 이내 머슴바지가 되어버렸던 기억...

코쭝배기 속에 헌 양말을 구겨 넣고도 헐거웠던 뚝 고무신발,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는커녕 며칠 새 장마통 똘캉에 그 한 짝을 떠내려 보내고는 죽죽 울던 서러움...

술찌끼미에 신화당(사카린)을 버무려서, 동생과 몰래 소 우리 여물통 뒤 켜에서 킥킥대며 훔쳐 먹다, 그 기운을 못 이겨 이내 곤드레 널 부러진 채로 큰 고모에게 걸려 흠씬 두들겨 맞던 추억...

낚시바늘 미늘에 보리꿰어 낚아 올린, 족히 두 뼘은 되어 보였던 발갱이(잉어), 그것도 곤죽에 실가시가 많아 입에 대지도 못하고, 이내 도야지 여물통에 퍼붓고 팔딱팔딱 튀어 올랐던 살아생전 발갱이를 떠올리곤 차마 뒤돌아 설 수 없었던 처절했던 미안함...

논둑 밑 부엌에 옹기종기 또아리 틀고 구부려 앉아, 톡톡 싸리 빗자루에 불을 놓고, 이리저리 그슬려 콩볶아 먹던 친구들, 하나같이 주둥이 언저리에 잿빛 수염을 무치고는 꼴좋다며 서로서로 죽어라 죽어라 키득키득 뒤집어졌던 기억...

크게 뛰어올라야 그나마 운 좋게 꺾을 수 있었던 처마 밑 고드름, 훌쩍훌쩍 누런 콧물을 섞어 아그작 아그작 깨물어가며, 그도 먹다가 얼어 지치면 볏짚에 댓발로 엮어 옥수수 타래 옆에 걸어두고 실로폰 소리타작에 아하를 시작으로 신라의 달밤을 부르던...

해 찬 듯 서울 가시나 얼굴을 석류나무 앞에 걸어두고, 꼴딱꼴딱 목젖소리를 숨죽여 가며, 이내 아침녘 해오름에 첫차 동방버스로 그 가시나를 떠나보내고, 등굣길에 골 패인 동방버스 타이어 발자국을 따라 이유 없는 그리움에 고개 떨구고 철퍽철퍽 걸어갔던...

'김일의 박치기', '천규덕의 당수도', '이노끼의 코브라트위스트', 미닫이 흑백 TV에 둘러 앉아 머리 틈을 비집고 한 장면 한 장면을 가슴병풍에 평생 새겨둘 요량으로 마른 침 삼켜가며, 그러다가 만세소리 삼창으로 온 동네를 들어올렸던...

배수한무 삼천갑사 동방사의 구봉서, 꿍따라닥따 삐약삐약의 이기동, 헐렁이 배삼룡의 웃으면 복이와요, 언제고 떠올리더라도 주저없이 샘솟듯 솟아나는 요괴인간 벰 · 베라 · 베로, 황금박쥐, 오인의 특공대, 우리는 축구왕, 타이거마스크, 우주소년 아톰 스토리...

상여길에 방울소리 딸랑딸랑, "서른서이 상두군아 발을맞자 소리하소, 좁은길도 널리잡아 질도없이라 넘어간다, 어허 어어어 어라넘자 넘화여", 개울을 앞에 두고 노잣돈을 지펴 저승길을 밝혀가던 아스름한 상여소리...

'갑바치기', '대고치기'(딱지치기놀이), '봄들기', '삼각형'(구슬치기놀이), '다방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건너뛰기놀이), '우리 집에 왜왔니 왜왔니', '두껍아 두껍아 모하니', '망까기'(돌치기놀이)에 하루해가

짧았던...

하나같이 풀어쓰자면 아리삼삼한 꿈결같은 이야기인데도, 이런 이야기를 자신의 중학교 3학년 딸내미에게 사부작 사부작 들려줄 때면, 어김없이 한바탕 가족 대반란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아빠! 이상한 얘기 하지마~보이"

"남들이 들으면 오해한다니까~불이!"

"여보! 딸내미에게 핀잔 들으니 기분 좋아요~들레이?"

"이제 그런 소재는 그만합시다~람쥐!"

"엄마!, 아빠 내 얘기 듣고 기분 별로 안좋으시겠조~인호!"

이놈의 식솔들은 이를 '꺾기도'라고 했고, 공교롭게도 그 본질이 남들을 공황상태에 빠뜨려 허우적대게 만드는 것에 있다고 하면서, 이에 덧붙여 늘상 이 해괴한 꺾기도로 자신을 놀려대고 있다는 푸념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 술 더 떠, 그렇다면 자신의 식솔들의 꺾기도는 공황상태로부터의 카타르시스(catharsis)이고, 자신의 꺾기도는 공황상태로부터의 나르시스(narcissus)라고 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제는 아동문학을 버려야 할 때라고, 아니 오래전에 버렸어야 했었다고 웅얼대면서...

그의 말을 다 듣고 난 후, 나 또한 잠시나마 이런 생각에 소스라치듯 멈칫한 적이 있었다.

'내가 꺾어야 할 것이 있다면? 게 무얼까? 지금 당장 꺾어 버려야 할 빛바랜 것이...'.

모르긴 해도 이런 생각이 틀림없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도, 지금껏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혹여 나도 김선생님처럼 공황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오늘따라 유독 우리 중학교 1학년 딸내미가 무서워지는 이유가 왜일까? 그 또한 모를 일이다.